

코스피	코스닥
3200.83 (+16.41)	805.42 (+8.61)
금리 (미국 9월)	환율 (원/달러)
2.472 (-0.003)	1392.75 (+0.45)

구형 D램·첨단 EUV 병행... 삼성·SK, 中 ‘투트랙 방어’

K-반도체 ‘D램 왕좌 지키기’

DDR4 공급불안에 가격 역전 지속
생산 전략 조정하며 점유율 수성
中 CXMT 추격 가속... 업계 긴장감
EUV 투자로 차세대 기술 고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D램 기술 추격에 맞서 첨단 장비 도입과 생산 전략 조정에 나서며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축소 방침이던 구형D램 생산을 다시 늘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내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4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최첨단 EUV(극자외선) 장비를 도입하며 D램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첨단 D램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High(하이)NA EUV’장비를 이전 M16팩(Fab)에 반입했다. 하이NA EUV는 기존 EUV보다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킨 차세대 노광 장비로 2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10나노 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연구용으로 하이NA 장비를 구내에 들여온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기업은 D램 시장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2분기 SK하이닉스는 33.7%의 점유율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2.7%로 직전 분기 대비 점유율이 1%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다만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연간 7%를 기록한 뒤 오는 2027년에는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는 CXMT가 최신 D램 메모리인 DDR5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또한 내년 출시를 목표로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샘플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점진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DDR4 생산을 2026년까지 연장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 전략을 꾀하는 모습이다. 메모리 빅3(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모두 당초 DDR4 생산 축소 계획을 내놨으며 중국 CXMT 또한 DDR5 전환을 가속하자 DDR4의 공급 우려가 커지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DR4 ‘16GB 2Gx8’ 가격은 지난 6월 DDR5 ‘16GB 2GxB’ 가격을 넘어선 뒤 3개월째 가격 역전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DDR4가 7.01달러, DDR5가 5.85달러였으나 지난 8월 각각 8.59달러, 6.17달러를 기록하며 제품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양대노총 위원장과 손잡은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를 기록하며 제품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

DDR5가 DDR4보다 전송 속도가 약 2배 빠르고 전력효율도 30%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DDR4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일시적 수요

쏠림 현상이기에 곧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종환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D램은 수요 사이클이 뚜렷하다. DDR4의 경우 올해까지 수요가 이어지고 내년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 DDR4

생산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감산하며 조율하면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D램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10나노 공정보다 초미세 공정 패턴 구현 능력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특별자금 10조 공급

창업·성장·애로기업 맞춤형 지원
금리 보증료 인하로 금융비용 절감
폐업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도 넓혀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중세트’를 마련하고, 은행권의 폐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융비용 경감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

화 방안 등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면서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은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정책 금융기관의 자체 여력으로 운영된다.

자금은 유형별로 ▲창업 기업(개업 7년 이내 기업)에 2조원 ▲성장 기업(매출

증가·수출확대 기업)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기업(매출감소·경영악화 기업)에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우대금리는 종전의 1.3%포인트(p)에서 1.5~1.8%p까지 적용하며, 우대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동일 신용·재무조건에서도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상품별 대출 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된다. 상향폭은 약 60% 이상으로, 예시로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축진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통해 보증대출이 제공되며,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된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SK온,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플랫폼아이언과 1GWh 규모 ESS 계약

6.2GWh 규모 우선 협상권도 확보
최대 7.2GWh 규모 공급기반 마련

SK온이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저장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플랫폼아이언 에너지 개발(이하 플랫폼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플랫폼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플랫폼아이언이 2030년까지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전용 라인으로 전환해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 ESS는 전기차보다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 기반으로 설계됐다. 랙 단위 대신 모듈 단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국민의힘, 추미애 국회 윤리위 제소... “법사위원장 중립성 흔들려”

/사진 뉴시스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향후 별도 추모 행사 마련

▲특검 “한동훈 출석 필요... ‘표결방해’ 진상 규명에 큰 도움”

▲국세청, 133만 체납자 전수조사... ‘이재명식 행정’ 전국 확대

▲대통령실, 지출 구조조정 상시화...과감한 재정 개혁 추진

▲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관련 윤리감찰단 긴급조사 지시